‘힙한 불교’ 이번엔 나란다 축제서 만난다

은정문화진흥원 · 조계종 포교원 제16회 나란다 축제 요강 발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오는 8월 30~31일 동국대 일원서
기획위원단 통해 학생 참여 확대
교리경시대회, 진학상담 등 ‘풍성’
상월결사 안거체험, 걷기순례 진행
대학생 참가하는 국악경연대회도



올해 나란다 축제는 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참여형 축제로 확장된다.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성월 스님)과 조계종 포교원(원장 선업 스님)은 6일 26일 동국대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6회 나란다 축제’ 요강을 발표했다.

올해 나란다 축제는 8월 30일, 31일 양일간 서울 동국대 일원에서 개최된다. 부문별 참가 접수는 7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다.

올해 주목할 부분은 청소년기획위원단의 활동이다. 14, 15회 나란다 축제에 이어 올해 3기째를 맞는 청소년기획위원단은 나란다축제 기획·운영에 관심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7월 중 발족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다. 특히 올해는 8월 중순 경 1박 2일의 청소년기획위원단 워크숍을 통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축제 프로그램 등을 기획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획·홍보·봉사·평가팀으로 나눠 활동하며 행사기획 및 진행, 평가와 SNS 홍보활동 등을 진행한다.

나란다 축제 운영위원장 성효 스님(용주사 주지·은정불교문화진흥원 상임이사)은 “이전과는 달리 청년들의 불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변화를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이 ‘K붓다’임을 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통의 ‘불교교리 경시대회’ 중고등부는 8월 31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동국대 학림관 고사장에서 펼쳐진다. 시험문항은 중등부 40문항, 고등부 45문항이 출제되며, 객관식과 단답형 주관식, 서술형 문제로 나뉘어 출제된다. 문제는 동국대 건학이념위원회가 개발한 〈불교수업〉을 기반해 불교교리, 불교역사, 불교문화, 불교신행·생활 등에서 출제된다. 특히 올해의 불교교리 경시대회 예선은 7월 초에 실시돼 더 내실있는 불교교리 경시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전! 범종을 울려라’ 초등부 결선은 결선점수 합산제도와 OX퀴즈 방식을 통해 참가 학생들이 오래 함께 하며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진다. 교재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초등부 기출문제〉로 일원화해 공부에 대한 부담도 대폭 줄였으며, 기출문제집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운로드하면 된다.

지난해부터 오전으로 옮겨져 진행된 나란다 K-댄스경연대회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오전에 진행된다.

상월결사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상일결사 안거체험, 걷기순례 등도 축제 양일 간 진행된다. 안거체험과 걷기순례는 모두 사전신청으로 진행되며, 더욱 깊게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의 진학 및 진로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8월 31일 오후 1시부터 동국대 일원서 진행되는 진학·진로 체험은 △2024년 동국대 신입생 입시경험 소개 △입학사정관의 포트폴리오 지도 △청소년 선호직업 연사 초청 특강 △연극학부 등 실기 중심 학과 연계 체험 등의 프로그램 진행된다.

올해 일곱 번째를 맞은 ‘은정전통예술국악경연대회’는 8월 31일 오후 1시부터 본관 중강당에서 펼쳐진다. 경연대회는 기악·성악·타악으로 나눠 진행되며, 대학 및 대학원 관련 학과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종합대상인 문화체육부장관상 수상자에는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최우수상인 중구청장상은 100만원, 우수상인 동국대 이사장상은 50만원, 장려상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상은 30만원(각 부문별 1인)의 상금이 시상된다.

“발달장애인가족 사회적 참사 멈추게 하라”

조계종 사노위 · 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 삭감 규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 이하 부모연대)가 6월 27일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서울시청까지 발달장애인가족 지원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오체투지를 진행했다.〈사진〉

사노위 스님들과 부모연대 위원을 비롯한 500여 명의 회원들은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몸을 던지는 오체투지로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규탄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명 보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서울지부와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 협의를 지속했지만, 상임에서 전부 거절당했다”며 “발달장애인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까지 진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노위 수석부위원장 혜문 스님은 집회에서 “조계종 사노위도 발달장애인 가족의 생명권과 인권 정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해 부처님의 가피 아래 모든 분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기도하겠다”며 연대의 뜻을 밝혔다.

부모연대는 5월 28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10개 지역에서 전국 순회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사노위는 부산(6월 5일), 대구(6월 11일), 충남(6월 14일), 광주(6월 17일), 전북(6월 18일), 대전(6월 20), 세종(6월 25일), 서울(6월 27일) 지역에서 연대했다. 부모연대는 전국 순회 오체투지에 연대해 준 사노위에 감사하는 의미로 6월 27일 서울 오체투지를 마친 뒤 혜문 스님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김가령 수습기자

서울 진관사, 백초월 스님 순국 80주기 추모재

6월 23일, 독립운동 학술세미나 “태극기 기념관 건립” 목소리도

스님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백초월 스님의 순국 80주기를 맞아 이를 추모하고 사상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서는 초월 스님의 독립운동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태극기 기념관 건립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서울 진관사(주지 법해 스님)는 6월 23일 경내 함월당과 한문화체험관에서 ‘백초월 스님 순국 80주기 추모재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사)백초월스님선양회(회장 법해 스님)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과 주지 법해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교수 문광 스님, 백외식 백초월 스님 종손, 박주민 국회의원, 김미경 은평구청장, 서울시의원과 은평구의회 의원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 다례재에서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은 경내 칠성각 해체보수 중 태극기가 발견된 2009년 5월 26일을 떠올렸다. 스님은 “빛바랜 태극기와 독립신문 뭉치에서 전해지는 가슴속 깊은 울림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아직도 생생히 기억된다”면서 “초월 스님의 독립운동을 재조명, 추후 초월 스님의 학술 및 선양활동에 새로운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광식 교수는 추모사에서 진관사에 태극기 기념관이 건립돼야할 것을 강조했다. 30여 년 전부터 백초월 스님의 불교사상과 독립운동에 대해 연구해온 김 교수는 “태극기 기념관 같은 시설이 건립돼 스님의 독립운동의 뜻을 널리 선양해야한다”고 말했다.

2부 세미나는 진관사 한문화체험관 흙다움에서 ‘백초월 독립운동의 재인식’을 주제로 진행됐다.

‘진관사 태극기의 역학적 고찰’을 발표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 문광 스님은 태극기 괘상을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문광 스님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태극기는 수화기제(63)의 괘상을 보이고 있으며 복희팔괘와 정역팔괘의 괘상과 동일해 안정되고 완성된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는 독립운동을 통해 해방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하나의 완성이며 음양이 완전히 배합된 복희팔괘와 미래를 예측한 계룡산에서 나타난 정역팔괘의 괘상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은호 기자

“호국영령 헌신 늘 잊지 않겠습니다”

군종교구 ‘호국영령 위령대재’ “국가적 행사로 승격 발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이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위령대재가 거행됐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가 주최하고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고현석·육군 중장)가 주관한 ‘제24회 호국영령 위령대재’가 6월 22일 서울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에서 엄수됐다.〈사진〉 특히 올해 위령대재는 고 정동호 장군과 현성 스님의 원력으로 1984년부터 5군단 호국 금강사에서 봉행되던 위령재를 통합·확장해 마련한 것으로 호국 정신 계승에 의미를 더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국가적 행사로 승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숱한 위험 속에서도 지금의 우리나라가 보존되고, 민족이 살아남은 것은 기적과도 같다. 이 모든 것은 가능하게 한 건 나라를 지켜온 순국선열들 덕분”이라며 “(호국영령들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마땅히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후손들에게도 이같은 역사를 잘 전달해줄 의무가 있다. 내년에는 국가 차원에서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종단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조화와 조전을 보내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

위령대재가 여법하게 열릴 수 있도록 정성을 쏟은 참석자 한 명 한 명에게 감사를 표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오늘 위령대재가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잊지 않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종평위, ‘해미읍성’ 성지화 답사 추진

9월 5일 예정…3차 회의서 결정 “심각성 실제 느끼고 방안 모색”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향문 스님, 종평위)가 해미읍성 일대에 광범위하게 펼쳐지는 가톨릭 성역화 사업 현장 답사를 진행한다. 실제 현장에서 성지화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역사 복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종평위는 6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종회분과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해미읍성 일대 특정 종교 성지화 진행 현황을 파악하고자 9월 5일 현장 답사를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사진〉

이날 조계종 사회부 보고 내용에 따르면 해미읍성은 2014년 당시 프란치스코 가톨릭 교황이 내한했을 때 이곳을 찾아 처형당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본격적으로 가톨릭 성지 개발이 이뤄졌다. 관광 안내판, 입간판 등에 가톨릭 ‘박해’의 역사만을 강조한 내용이 담겨 종교편향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사회부는 십자기의 길, 천주교 박해 관련 안내문 등 해미읍성의 공공성을 훼손한 조형물에 대한 시정 요구를 담은 공문을 서산시에 몇 차례 발송했다. 그럼에도 서산시는 회신에서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것일 뿐 특정 종교 성지화를 위한 조형물이 아니”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사회부장 도심 스님은 “종평위 위원스님들도 가톨릭 성지로 고착된 해미읍성의 실제를 보고, 공공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지혜를 함께 모으자”고 강조했다.

김내영 기자

동국대 듀이카, 불교동아리 ‘반야듀’ 창립

6월 27일 정각원서 창립법회 봉행



동국대가 최근 14개 단과대 및 일반대학원에 불교동아리를 창립해 전법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가운데 듀이카에서도 설립 49년 만에 불교동아리를 창립, 대학생 전법 원력에 힘을 모았다.

듀이카(원장 손재현, 구 동국대 전산원)는 6월 27일 교내 법당 정각원에서 불교동아리 ‘반야듀’ 창립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듀이카 불교동아리 ‘반야듀’는 100여 명의 회원이 동참하고 있으며, 박수정 경영학과 학생이 동아리 회장직을 맡았다. 지도법사에는 견명 스님이, 지도교수로는 이성무 경영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오늘은 14개 단과대와 일반대학원 불교동아리 창립에 이어 듀이카의 ‘반야듀’가 마지막 16번째 불교동아리가 된 역사적인 날”이라며 “반야듀는 최고의 지혜를 뜻하는 반야(般若)와 듀이카를 합친 합성어다. 동국대의 아들딸들이 지혜와 함께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수정 회장은 “반야듀는 불교 문화 체험으로 학업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동아리”라며 “앞으로 명상,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체험, 불교 영화 감상을 통해 불법을 알리고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재 수습기자

운문사, 천년을 세우다 등에 2000만원

6월 24일, 진우 스님 예방서

운문사가 종단 불사에 정성을 보태며 한국불교 발전을 기원했다.

운문사 주지 진성 스님은 6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에 불사금 1000만원, 승려복지기금 100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사진〉



운문사 주지 진성 스님은 “한때 한 반에 학인스님이 60명이 넘었지만, 지금은 5분의 1로 감소했을 정도로 출가자 감소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상주대중 모두가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운문사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운문사 살림도 어려울 텐데 매년 잊지 않고 복지기금을 전달해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내영 기자

호국미타사, 공군 불교 문화탐방 성료

6월 16일, 양양 휴휴암서



군포교에 진력하는 공군 제8전투비행단 호국미타사가 6월 16일 장병들의 불교문화 학문 소양 증진을 위해 ‘지역 불교 문화탐방-통신보안’ 프로그램을 성료했다.〈사진〉

제13차로 열린 이번 문화탐방은 ‘휴휴(休休)’를 주제로 양양 휴휴암에서 진행됐다. 프로그램에는 40여 명의 군장병이 참석해 휴휴암에서 방생을 실천하며 생명 존중의 마음을 되새겼다. 양양 남애3리 해수욕장도 방문해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호국미타사 주지 관문 스님은 “장병들을 위로하고, 지역 사찰 문화에 대한 소양 증장을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며 “문화탐방 후 장병들의 감화된 스트레스가 전투력 향상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속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